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9월 26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9월 28일(목) ~ 29일(금): 추석 휴무

■ 연구원 소식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땀 흘린 만큼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가족의 정을 확인하는 추석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피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찾아오는 계절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삶도 갈등보다는 평화가 더 크게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해보다 긴 연휴라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넉넉하고 차분하게 가져도 될 듯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뜻있고 파스한 시간 나누고 돌아오시는 길 편안한 여정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도 남은 2023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마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변함없이 “모두를 위한 내일”을 위해 우리 연구원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023년 9월 24일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이사장 김병문 올림

★ 수도권 2차 문화답사 안내 ★

- 참가대상 : 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10명 이상 참가 신청시 진행)
- 일 정 : 2023. 10. 07(토) 15:00~21:00
- 장 소 :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경동시장 등
- 행사문의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사무국(063-286-3005), 박애스더 간사(010-3408-0128)
- 세부일정

날짜	시간	내용
10월 7일 (토요일)	14:30 ~ 15:00	출발지 집결 (한솔동의보감타워 앞 광장)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구)
	15:00 ~ 16:00	서울약령시 답사
	16:00 ~ 17:00	한의약박물관 견학
	17:00 ~ 17:30	구) 경동극장 방문
	17:30 ~ 21:00	저녁 식사 및 뒤풀이

※ 연구원에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9월 25일까지 연구원 유선전화(063-286-3005)나 박애스더 행정간사(010-3408-0128)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역사속의 오늘

윤석을 향한 총탄 - 1956. 9. 28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지난 1956년 9월 28일 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장인 서울 명동 시공관에서 암살 지령을 받은 김상봉의 저격을 받고 서울 명륜동 자택으로 옮겨져 누워있는 장면 부통령.

1956년 9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장면 부통령 암살을 시도하는 총성이 울린다. 이 시기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장면인 특수한 정·부통령 시절이었다.

천만다행히도 장면은 손에 스친 정도의 부상만 입었고 의연하게 “나는 이상이 없다”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범인이 총을 쏘고 체포된 지 5분만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난다. 김종원.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즐겨 사용했던 군인 출신의 치안국장. 여순 사건 때 일본도로 반란군의 목을 치고 다녔고 한국전쟁 당시 거창 양민 학살 은폐 주범이었던 그가 직접 현장에 나타나 범인을 접수한 것이다.

범인은 김상봉이라는 사람이었다. 그의 인척이 민주당 구파였고 그는 끌려가면서 난데없는 “조병옥 만세”를 외쳤다. 조병옥은 민주당 구파, 장면은 신파였으니 언뜻 보기에 장면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구파가 신파를 공격한 듯 보이게 한 서툰 연출이었다.

치안국은 “조병옥 만세”를 외친 김상봉이 민주당 신·구파의 내분에 분노하고 장면이 친일 행위를 하려 했기 때문에 분노하여 총을 쏜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4·19 혁명 이후 그 진상이 밝혀진다.

자유당 정권 2인자였던 이기붕이 서울시장을 지낸 임흥순에게 장면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임흥순이 내무부 장관 이익흥(이승만이 방귀를 뀌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까’ 했다는 전설의 장관)에게 운을 띄웠다.

이에 이익흥은 치안국장 김중원에게 말하고 김중원은 치안국 특수정보과장 장영복에게 지시하고 장영복은 박사일 중앙사찰분실장을 불러 전달한다. 박사일은 오충원 서울시경사찰과장에게 오충원은 이덕신 성동경찰서 사찰주임을 부르고 이덕신은 최훈에게 최훈은 마지막으로 김상봉에게 지시한 것이라는 기나긴 진상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온 것이다.

4·19 혁명 이후 열린 재판에서 이익흥이나 임흥순 등에게 사형이 언도됐지만, 5·16 쿠데타 이후 처벌은 모두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고 만다.

절대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어이없는 일이 행해지고, 말도 안 되는 조작이 행해지고, 억지를 부리다가 뜻밖에 폭로가 되면 그나마 몸통은 빠져 나가고 꼬리들만 남는다. 그 와중에 턱도 없는 꼬리 자르기들이 행해지고 꼬리는 “우리는 깃털일 뿐인데”를 들먹이는 일은 67년 전이나 요즘이나 다를 바 없는 듯하다.